

##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선택

### 전 현 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이 지원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방문하는 등 북한과 전통적인 우의를 과시하였다. 2001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4년만에, 그리고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국가간 정상회담은 늘상 있는 일이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제5차 6자회담을 눈앞에 두고 북한과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하는 것 때문이었다.

정상회담 결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은 제5차 6자회담 참석을,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늘 그렇지만 북한의 카드는 회담참석 자체이고, 중국의 카드는 경제지원인 것이다.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북한이 내놓은 '상품'은 대화의 장에 나와 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북한은 중국의 경제원조였가로 중국에게 광산개발권같은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겠지만 중국의 관심은 북한의 5차 6자회담 참석여부였을 것이고 북한은 중국의 요망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북한에게 개혁·개방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최소한 관광개방만해도 많은 달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왔다. 그 결과였는지는 모르지만 김일성 주석은 1981년부터 금강산, 묘향산에 대한 외국관광객 유치에 강조하기 시작했고, 1989년에는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 11월 드디어 금강산관광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보아 후 주석이 강조한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해 북한이 언제쯤 반응을 보일 지 궁금하다.

북중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혈맹관계'가 되었다. 거의 다 망해가는 북한을 극적으로 구해준 국가가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소이념 분쟁으로 인해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당시 김일성 수상은 사회주의 형제국인 소련과 중국 모두를 불신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양다리 외교'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만 몰두하였다.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시작한 1966년부터는 북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중국 홍위병들이 김일성 우상화를 비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북한은 중국을 백안시하고, 중국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렇

다고 중국이 약소국인 북한에 대해 막무가내로 으박지르지도 않았다. 어쨌든 흔히 중국이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언행이다. 중국도 압력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중국의 압력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간접적인 개혁·개방 권고도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온 외교적 언사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에 중국의 권고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달리 “중심이 짧기 때문에 개혁·개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개방의 지는 분명히 하되 미국의 압박과 북한주민의 충격 가능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무한정 개혁·개방을 미루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권고가 있든 없든 북한자체의 필요에 의해 개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아니 북한은 이미 개방을 시작하였고, 서방의 도움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북 투자가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에 매진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안보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안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이 마음놓고 문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제5차 6자회담에 참여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국가목표인 체제안전 보장과 경수로 지원 문제를 강도 높게 주장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미국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5차 6자회담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부시 정부는 현재 이라크 사태 담보, 리크게이트 등 다양한 국내외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제4차 6자회담 때와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든 5차 6자회담이 결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보도된 대로 20억 달러 이상이 된다면 남북경제교류 협력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성이 높은 광물 채굴 권은 이미 중국이 거의 모두 선점했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이 되었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후 주석 방북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남한의 대북 진출 기회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로서는 하루속히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합의하고, ‘경제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중국 탈출구를 확보한 북한이 남한 배제 내지는 남한적대시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차피 국제정치는 냉혹한 것이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웃국가와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힘은 경제력이다. 이를 십분 활용하여 북한을 우리 편으로 끌어 들이지 않으면 남북한은 항상 ‘불안한 공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강대국의 ‘분할통치’ 전략에 놀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